

“역사는 이름 없는 ‘별’들의 이야기, 함께 공감했으면”

조정태 ‘명멸하는 별들에게’展, 내달 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대형 회화 등 10여점…별·고인돌 등 상징물로 역사, 인간 조명
“이면에 감춰진 삶의 단면 주목…여운 남기는 그림 그리고 싶어”

“역사를 이루는 것은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간 수많은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3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명멸하는 별들에게’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 중인 조정태 작가를 최근 만났다.

오랜 시간 민중의 삶과 사회의 근원을 탐색해 온 그는 ‘별’이라는 상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억과 현재를 화폭에 담은 작가다.

대작 위주의 작품 10여 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서울에서 선보였던 작업을 광주에서 이어가는 자리다.

특히 대형 작품의 스케일을 살리기 위해 코너 공간을 활용해 캔버스를 ‘V’자 형태로 배치하거나, 하나의 작품을 두 벽면에 나눠 설치해 거리감과 시선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전시 구성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전시의 핵심은 2012년부터 이어온 ‘별이 된 사람들’ 연작이다.

작가에게 ‘별’은 특정 인물이나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간 소시민이자 무명인들의 삶을 상징한다.

그는 “별은 알려지지 않은 개인들의 이야기”라며 “그 사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작업이 5·18 등 근현대사의 사건에서 출발했다면, 최근 작업은 더 오래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지금의 복잡한 문제들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며 “역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물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명석과 주검의 이미지는 희생된 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짙으로 만든 배는 영혼을 위로하며 떠나보내는 제의적 장면을 형상화한다.

작품 ‘별이 된 사람들 - 문명의 시작’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이면을 함께 보여준다. 겉으로 드러난 형상보다 그 아래 감춰진 층위에 주목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온 역사와 삶의 단면을 떠올리게 한다.

고인돌을 소재로 한 작업에서는 권력의 속성



작품 ‘별이 된 사람들 - 문명의 시작’ 앞에 선 조정태 작가.

을 탐구한다.

작가는 “고인돌은 처음에는 신과 소통하기 위한 공동체적 행위였겠지만, 이후 권력의 도구로 변해갔다”며 “지금도 다수를 내세워 권력을 정당화하는 구조는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작품은 역사, 권력, 문명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고 있지만, 표현 방식은 직설적이기보다 상징과 은유에 가깝다. 그는 “구호적으로 그리는 방식은 지양하고 싶다”며 “시적인 은유를 통해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

다”고 밝혔다.

최근작 ‘항회’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업이다.

지난해 11월 완성된 이 작품은 캔버스 대신 실사천에 그린 대형 결계 형식으로, 기존 작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재료와 표현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작가는 작업의 출발점에 대해 “어떤 사건을 즉각적으로 그리기보다 마음속에 화두를 쌓아 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추동이 생기면 작업으로

이어간다”며 “감정과 여운이 남는 그림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재현이 아닌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풀어내는 그는 앞으로도 오래 남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명을 앞세우기보다는, 보고 나서 한 번쯤 마음에 남고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명진 기자

정통 아리아부터 서정적인 가곡의 향연

소프라노 김선희 독창회…내달 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시대별 고전 음악과 서정적인 한국 가곡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성악 무대가 펼쳐진다.

소프라노 김선희(사진)가 오는 4월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독창회를 열고 지역 관객들과 만난다.

먼저 1부에서는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아름다운 쾌락은’을 시작으로, 슈트라우스 가곡 ‘수레국화’, ‘양귀비꽃’,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아무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등 정통 클래식 곡의 정수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정애련의 ‘강변 아리랑’,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친숙한 한국 가곡을 노래한다.

이어 카탈라니의 ‘그렇다면, 멀리 떠나겠어요’와 푸치니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드라마틱한 아리아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이날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김민준, 바이올리니



스트 김도연, 첼리스트 이미기가 협연자로 참여해 풍성한 선율을 더한다.

소프라노 김선희는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 음악원과 베르첼리 비오티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등을 마친 뒤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등 다수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해 왔다. 특히 슈베르트 국제 콩쿠르 입상과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노벨평화상 광주 정상회의와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등 주요 국가적 행사의 독창자로 초청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소프라노 김선희는 오는 4월17일 오후 7시30분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도 독창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고난 넘어 희망으로 그려낸 대서사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미라클’…내달 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고난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서사를 담은 뮤지컬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오준혁)은 오는 4월4일 오후 5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47회 정기공연 뮤지컬 ‘미라클(Miracle)’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영화 ‘이집트 왕자’를 모티브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선에서 재구성했다.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흥미와 감동을 함께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연은 합창과 함께 연기와 안무, 무대 연출을 결합한 뮤지컬 형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흥제가 갈라지는 장면 등 극적인 순간을 합창단 특유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내며 몰입감을 높일 예정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이다.

무대에는 이서은, 이세은, 정호진 등 단원들이 주요 배역으로 참여한다. 오준혁 지휘자를 중심으로 박기수 연출, 이승희 연기·안무, 정민지 음악감독이 함께해 작품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본 공연 티켓이 매진되면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시민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공연 당일 오후 2시 오픈 리허설도 진행한다. 선착순 자유석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실제 공연과 같은 흐름 속에서 무대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텅 빈 냉장고, 다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ARS 무료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